

곽항기 서울시의원, 서울교통공사 재정위기 속 혈액암 예방 예산 200억원 확보 ‘빨간불’



곽항기 서울시의원(국민의힘, 동작3)은 어제(3일) 서울시의회 제332회 임시회 교통위원회에서 서울교통공사를 대상으로 서울지하철 노동자 혈액암 집단 발병 이후 1년간의 연구용역 결과가 내년도 예산에 전혀 반영되지 않은 심각한 실태를 강하게 지적했다.

지난해 서울지하철 정비 노동자 7명의 혈액암 ‘집단발병’이 언론보도를 통해 처음 드러난 것을 계기로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2007년 이후 공사 차

량·기계분야에서 13명이 혈액암 진단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해당 연구용역은 지난해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1년간 추진됐으며, 상급자 결제 등을 거쳐 8월말 최종 보고서가 도출됐다. 용역 결과, 공사 근로자들의 혈액암 예방을 위해서는 노후 장비 전면 교체, 발암물질 유발 공정 변경, 디젤 기관차 배터리식으로 교체 등 대대적인 환경 개선이 필요. 이를 위한 예산이 208억 원 규모로 추계 되었다.

그러나 현재 서울교통공사 부채비율이 94%에 달하며, 6월말 총 부채는 7조 7,247억원으로 전년 대비 3,774억원이 증가했다. 이 중 금융부채 4조 7천억원에 대해 올해 상반기만 약 758억원, 일평균 4억 2천만원의 이자를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상반기에만 3,400억원이 넘는 손실을 기록하는 등 당장 필요한 시설 개조를

위한 200억원 이상의 예산확보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전망이다.

곽 의원은 “서울교통공사는 서울시의 대중교통 정책인 기후동행카드 비용 부담이나, 서울시 결정하에 현실적 운임 정책과 같은 결정권이 없어 심각한 재정난을 겪고 있다.”라면서 “공사 직원들의 생명과 서울 시민의 안전한 대중교통 이용권을 보장하기 위한 대대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다음 해 예산 책정을 위해 서울시 각 부서는 한 해 동안 필요한 부서별 예산안을 정리해 기획조정실 예산과로 통상 7월경 제출하고 있지만, 서울교통공사는 지난 6월 용역이 준공되었음에도 서울시에 예산을 요청하지 않다가 8월 20일에서야 혈액암 예방을 위한 작업환경 개선 예산지원을 건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지난해부터 올해 6월까지 혈액

암 예방을 위한 공사 내 추진 실적은 실태조사용 용역과 20년 이상 된 노후 부품 세척기 2대 교체뿐으로, 현장 작업자들은 여전히 위험한 작업환경에 노출돼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교통공사 백호 사장은 곽 의원 질의에 대해 “아직 예산을 확보하지 못했으며 서울시와 긴밀하게 논의 중”이라고 답했다.

곽 의원은 “재정 악화가 계속돼 직원들을 위험한 환경에 방치하는 것은 세계적인 서울 지하철 인프라 및 서비스와 시민 안전에 심각한 위협이 된다.”라며, “서울시의 즉각적인 재정 지원과 환경 개선을 위해 적극적인 논의를 촉구한다.”라고 질의를 마쳤다.

이에 백호 사장은 “상황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최우선으로 삼겠다”라고 답변했다.

강남구의회, ‘2025년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 참석



강남구의회(의장 이호귀)는 양성평등주간을 맞아 4일 삼성2동 문화센터 7층 대강당에서 열린 ‘2025년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에 참석했다.

올해 행사는 ‘모두가 존중받고 모두가 행복한 강남구’를 주제로, 성별·세대·문화의 경계를 넘어 모두가 존중받으며 어울릴 수 있는 사회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번 행사에는 강남구민과 경력 단절 여성을 비롯해 강남구의회 복진경 부의장·이동호 운영위원장·김현정 복지문화위원장·전인수·윤석민·바다미 의원이 함께해 양성평등 유공자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고, 행사 참석자들과 소통하는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다.

행사는 ▲양성평등 유공자 표창 ▲경력 단절을 극복한 여성의 ‘경력이음 스토리’발표 ▲팜페라 공연 등 성평등 가치 확산과 더불어 감동과 공감을 나눌 수 있는 프로그램들로 구성됐다.

이날 복진경 부의장은 축사를 통해 “양성평등은 특정 집단의 과제가 아닌 우리 사회가 함께 만들어가야 할 기본 가치”라며, “양성평등에 대한 주민들의 공감대를 넓히고, 모두가 존중받으며 행복한 강남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의회도 늘 함께하겠다”라고 말했다.

인천시의회 건교위, 시민 행복 위한 현장 중심 의정활동 전개



인천광역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위원장 김대중)는 지난 2일부터 3일까지 이틀간 인천시 주요 사업 현장 7곳을 직접 찾아 사업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관계자 및 주민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4일 밝혔다.

이번 현장 방문은 도시 개발과 생활 SOC 확충, 교통 인프라 개선 등 시민의

삶의 질과 직결되는 현안 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에 건설교통위원회는 현장에서 제기된 문제점과 개선 사항을 면밀히 검토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첫째 날인 9월 2일 위원들은 ▲동수

역 3번 출구 이설 공사 현장 ▲부개교 가교 노후시설 개량 공사 ▲효성 도시개발구역 등을 차례로 점검했다. 둘째 날인 9월 3일에는 ▲용현·학의 1블록 도시개발 사업구역 ▲주안 남부종합시장 공영주차장 건설현장 ▲인천 1호선 예술회관역 ▲인천광역시청 신청사 건설현장을 방문했다.

효성 도시개발사업 구역에서는 대규모 산지 토목공사에 따른 안전 관리, 빗물 처리 관련 안전대책 및 구역 내 공가와 종교시설에 대한 적극적인 조치를 당부했다.

3일 방문한 용현학의 1블록 도시개발 사업구역에서는 사업의 추진 현황과 건설폐기물 처리 상황 등을 점검하였다. 특히 독배로 확장 공사 및 방음터널 등 기반시설이 적기에 공사가 완료되도록 주문하며 시민 생활환경 개선에 많은 관심을 기울였다. 또한 도로공사 등과 협의하여 제2경인고속도로 하부를 시

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시설로 조성하는 방안을 강구해달라고 요청했다.

남부종합시장 공영주차장 건설현장에서는 공정률과 안전 관리 상황 등을 확인하고, 주차장 진출입로 폭이 협소해 준공 후 이용객 불편이 우려된다고 지적하였다. 이에 위원들은 신속한 대안 마련을 당부하는 한편, 향후 통로 폭 협소로 인한 불편이 현실화될 경우 인근 구간으로 우회할 수 있는 실질적 대책을 병행해 제시할 것을 요구했다.

예술회관역에서는 역사 내 지하상가 입점 상인들과 소통하며 상가 천장에 누수가 몇 달째 진행 중인 점을 확인하고 인천교통공사에 즉각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교통공사와 홍보 강화, 입점 유지 전략, 상인 대상 마케팅 교육 지원 등 임대 활성화 방안 마련과 역사 내 공기질 개선 등 상가 환경 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심하린 기자

윤성근 부위원장, ‘방염 물품 실화재 실험’ 현장 참관…화재 확산 억제 효과 직접 확인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윤성근 부위원장(국민의힘, 평택4)은 9월 3일

충북 음성군에 위치한 한국건설방재시험연구원에서 열린 ‘방염처리 물품의

화재 확산 억제 효과 측정 실험’에 참석해 방염 제도의 개선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번 실험은 최근 잇따라 발생한 아파트 화재로 인한 인명 피해에 대한 대응책으로 마련됐다. 특히 방염처리 여부에 따라 연기 확산과 화재 피해 정도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실증해, 방염 제도의 개선과 관련 법·제도 정비에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목적이다.

윤성근 부위원장은 “스프링클러 등 초기 소화설비가 작동되기까지 화재와 연기의 확산을 억제할 수 있는 방염처리의 중요성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며

“실험을 통해 방염처리의 효과가 명확히 확인된 만큼,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보다 적극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윤 부위원장은 “경기도의회 차원에서도 아파트를 포함한 주거시설의 방염 기준 강화와 함께, 비방염 물품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방염제품 보급 확대를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실험은 방염처리된 주택 모형과 비방염 모형 두 동을 설치해, 동일 조건에서 점화 후 연소속도, 화염 확산 범위, 연기 농도 등을 측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송민수 기자

충남도의회 교육위, 교육공동체 지원 당부



충남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이상근)는 4일 열린 제361회 임시회 제1차 회의에서 조례안과 동의안 등 총 19건의 안건을 심사했다. 이번엔 제·개정 안건으로 상정된 주요 조례는 ▲충청남도교육청 학교시설 개방 지원 조례안 ▲충청남도교육청 장애인 교원 편의 지원 조례안 등이다.

이용국 부위원장(서산2·국민의힘)은 “학생 통학 여건이 개선될 수 있도록 도교육청은 도청·시군·지원청과 긴밀히 협의하고, 교육청 예산 비율을 늘려 학교에서 실효성 있는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응규 위원(아산2·국민의힘)은 “학교 체육시설의 지속 가능한 개선을 지원해 학생들이 안전하게 학습하고, 지역 주민들의 체육활동도 보장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학교와 지역사회가 상생하는 환경 조성에 적극적으로 노력해 달라”고 언급했다.

방한일 위원(예산1·국민의힘)은 “학생들의 기업가 정신과 진로 역량을 높이기 위해 도교육청은 학생기업 활성화 지원을 강화하고, 장애인 교원이 원

활히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근무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선태 위원(천안10·더불어민주당)은 “교육기관 내 승강기 설치가 늘어남에 따라 학생과 교직원들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지속적 점검과 철저한 유지보수, 관리 책임 명확화가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신한철 위원(천안2·국민의힘)은 “중증장애인 생사품 우선구매 제도의 법적 강제성이 약해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하며 “구매 목표 비율 명확화, 실적 공개 의무화 등을 통해 중증장애인 일자리 창출에 이바지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유성재 위원(천안5·국민의힘)은 “과학실을 이용하는 교직원과 학생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제공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며 “과학실 안전 관리 기본계획의 수립과 시행을 명확히 해 교육 현장에서의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지운 위원(비례·더불어민주당)은 “급변하는 교육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기존 교육시설을 창의적이고 유연한 학습 공간으로 전환하고, 지역 특성을 반영한 운영과 법적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상근 위원장(홍성1·국민의힘)은 “최근 학교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학교 폭력, 교직원 비위, 부정행위 등은 교육 현장과 교육행정에 대한 도민들의 신뢰를 크게 훼손시키는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현진 기자

아침밥이 보약! 아침부터 활약!

아침밥의 힘은 몸이 먼저 알기에
농협이 함께 응원하겠습니다.